

# 여성노동에 대한 유가 담론과 그 재생산 방식에 대하여\*

김경미\*\*

차례

1. 서론
2. 여성노동에 대한 유가의 인식
3. 여성노동을 기록하는 두 가지 방식
4. 결론

## 〈국문초록〉

이 글은 여공(女功), 치산(治産)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부녀의 덕으로 간주되어 온 여성노동에 대한 유교 담론을 유교 경전 및 여성 교훈서를 통해 살펴보고, 조선시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록 중 한 예를 들어 여성노동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그 담론 구성의 방식을 보기 위한 것이다. 실제 여기서 다루는 것은 주로 가내에서 이루어진 노동이 중심이 될 것이다. 유교 경전이나 여성 교훈서는 여성의 공간을 집안으로 한정하고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노동에 대한 유가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노동에 대한 유가의 인식을 간단히 살펴보고, 유교 경전과 여성 교훈서 중에서 『여사서』를 중심으로 여성노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본다. 유교 경전이나 『여사서』는 여성에 대한 지식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교육함으로써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L0015).

\*\*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HK교수.

그 지식을 공고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 장치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선시대 행장류 기록 중 신대우 부부에 대한 것을 비교하면서 부덕으로 여성노동 담론이 재생산되는 한편, 남성의 기록 속에서는 은폐되는 양상을 보고자 한다. 이것은 하나의 예이지만 조선시대 여성노동 담론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 여성노동, 여공, 여사, 부공, 치산, 여사서

## 1. 서론

이 글은 여공(女工), 치산(治産)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부녀의 덕으로 간주되어 온 여성노동에 대한 유교 담론을 유교 경전 및 여성 교훈서를 통해 살펴보고, 조선시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록 중 한 예를 들어 여성노동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그 담론 구성의 방식을 살펴본 것이다. 전통시대 여성노동은 여공(女工, 女功), 여사(女事), ‘부공(婦功)’이라고 해서 여자가 갖추어야 할 덕, 즉 부덕(婦德)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여기에는 생산과 소비를 관리하는 치산(治産)도 포함된다. 이는 가구를 중심으로 자급자족적 형태를 띠고 있던 경제 형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동 형태로 현대의 관점에서는 가사노동이라 부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일은 오늘날 가사노동의 범주를 넘어선다. 최근 전통시대 여성의 노동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진행되면서 그 양상과 성격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sup>1)</sup> 이 연구들을 통해 여성의 노동과 경제활동 양상이 드러났을 뿐만

---

1) 여성의 노동과 경제생활에 관한 논문으로 이효재, 「한국 여성노동사 연구 서설-조선사회와 여성노동-」, 『여성학논집』 2,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1985, 이순규, 「조선초기 여성의 생산노동」, 『국사관논총』 49, 1993, 김성희, 『한국여성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의 역사』, 신정, 2002, 권순형, 「고려시대 여성의 일과 경제활동」, 『이화사학연구』 31, 2004, 김경미, 「선비의 아내, 그녀들의 숨은 노동」, 『여/성이론』 11, 도서출판여이연, 2004, 「조선후기 여성의 노동과 경제활동:18~19세기 양반여

아니라 여성노동이 가정 경제에 필수적이었으며, 국가 경제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임이 밝혀지고 있다. 또 여공과 치산이 여성 교훈서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교육과 관련하여 여공과 치산을 살펴본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sup>2)</sup>

이상의 연구들을 참조하면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유교 가부장제를 근간으로 한 조선사회에서 여성노동은 어떤 위치에 놓여 있었는가, 여성노동에 대해 어떤 가치를 부여했는가, 그러한 가치 부여를 통해 여성을 어떻게 규율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여성에게 노동을 부과한 이념적 기반을 제공한 유교 경전과 여성 교훈서, 행장류 기록을 통해 여성노동에 대한 서술 내용과 방식을 보고자 한다.<sup>3)</sup> 여기서 여성노동은 주로 가정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여성의 노동을 의미한다. 조선시대에도 가정 밖에서 이루어진 여성노동이 없지 않았다. 기녀, 궁녀 등의 노동을 비롯해서 행상 등 판매노동, 해녀의 노동, 유녀(遊女)의 성노동은 가사노동 혹은 가내노동의 범주를 벗어나는 여성노동이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여성노동 담론은 주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여성노동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가정 공간에서 이루어진 여성노동을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가정 내에서 행해진 여성들의 일을 노동이라고 명명하지는 않았다. 오늘날의 개념으로 볼 때 이 일들은 분명 노동이지만 당시에서 이러한 일들을 노동이라고 명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글에서 여공이라는 말 대신 여성노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공이 전통시대 여성노동의 주요 부분이었음을 밝히는 동시에 여성노동을 근대 이후의

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8권 4호, 2012.

2) 그 예로 김언순, 「朝鮮時代 女訓書에 나타난 女性의 正體性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5, 49~84쪽을 들 수 있다.

3) 김경미, 앞의 글, 2012, 90~94쪽에서 유교 경전이나 교훈서에서 여성노동을 이야기하는 방식을 다룬 바 있다. 여기서는 여성노동이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가를 유가가 노동을 이야기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이야기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관점에서만 보는 시야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동 개념을 정리한 김경일에 의하면, 한국에서 노동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고려사』 권93의 열전 중 「최승로 조」의 “작역을 강제로 징수하여 인부에게 노동을 시킨다(暴徵作役, 勞動人夫)”라는 대목에서이다. 이때 노동이라는 표현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서의 ‘땀 흘려 일하다, 수고로이 일하다’는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sup>4)</sup> 이러한 의미의 노동 개념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계속 유지되어, 피로와 수고라는 의미로 조선 시대 말기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sup>5)</sup> 그런데 이때의 노동은 오늘날 경제활동에서 재화를 창출하기 위한 인간 활동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수고로이 일한다는 정도의 의미이다. 오늘날 노동의 개념이 의미하는 바의 노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를 노동으로 명명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전통시대 여성의 일을 노동의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그 산업적 의미를 부여한 것은 이능화의 『조선여속고』가 거의 처음일 것인데 여기서도 노동이라는 말 대신 ‘노력동작(勞力動作)’<sup>6)</sup>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이 말은 ‘힘을 써서 일한다’는 뜻으로, 이를 줄이면 노동(勞働)이 된다. 여기서 ‘動’을 쓰지 않고 ‘働’을 쓴 것은 일본을 통한 서구의 노동 개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900년대 초반부터 조선의 지식인 사회에서는 ‘勞働’보다 ‘勞働’이라는 표기를 많이 썼는데 이는 일본에서 서구의 노동 개념을 ‘勞働’으로 번역한 것을 수용한 결과이다.<sup>7)</sup> 따라서 이능화의 ‘노력동작’이라는 말도 근대의 노동 개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능화는 ‘조선여자노력동작’에서 방적, 농사, 판매, 절구질, 다듬이질, 해녀의 일을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능화가 언급한 노동을 다루지 않고 주로 가내에서 이루어진 노동을 다룬다. 유희 경전이나 여성

4) 김경일, 『노동』, 한국개념사총서 9, 小花, 2014, 202쪽.

5) 위의 책, 203쪽.

6) 이능화, 『朝鮮女俗考』, 민속원, 1995, 122쪽.

7) 김경일, 앞의 책, 205쪽.

교훈서는 여성의 공간을 집안으로 한정하고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여성노동에 대한 논의는 가내노동을 넘어 더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여성노동에 대한 유가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노동에 대한 유가의 인식을 간단히 살펴보고, 유교 경전과 여성 교훈서 중에서 『여사서』를 중심으로 여성노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본다. 유교 경전이나 『여사서』는 여성에 대한 지식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교육함으로써 그 지식을 공고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 장치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선시대 행장류 기록 중 신대우 부부에 대한 것을 비교하면서 부덕으로 여성노동 담론이 재생산되는 한편, 남성의 기록 속에서는 은폐되는 양상을 보고자 한다.

## 2. 여성노동에 대한 유가의 인식

### 2.1. 노동에 대한 유가의 인식

유가는 노동을 어떻게 이해했으며 여성의 노동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김경일은 유가의 노동관의 특징을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이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둘의 구분은 공자의 사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공자는 군자의 일과 소인의 일을 명확히 구분 지었다. 군자의 일은 예, 의, 신과 같은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고, 소인의 일은 농사일과 채소 가꾸는 일과 같은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sup>8)</sup> 『논어』 「자장」 7장의 “온갖 공인은 공장에 있으면서 그 일을 이루고, 군자는 배워서 그 도를 지극히 한다”<sup>9)</sup>는 구절이나 「위령공」 32장 “군자는

8) 이영찬, 「공자의 경제사상과 노동관」, 『한국학논집』 38,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8, 107~108쪽.

도를 도모하고 밥을 도모하지 않는다. 밥을 값에 굶주림이 그 가운데 있고, 학문을 함에 녹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니, 군자는 도를 걱정하고 가난함을 걱정하지 않는다.”<sup>10)</sup>는 것이 그 예이다.

이처럼 공자는 소인의 일과 군자의 일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양자에서 삶의 방식의 차이를 지적한다.<sup>11)</sup> 그러면 공자는 이 두 가지 일을 단지 분업 차원으로 생각한 것일까? 공자는 소인과 군자의 일 양자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전자보다는 후자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자는 도덕성을 실천하기 위한 도의 추구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군자는 생계를 위해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논어』 「자로」 편에서 번지(樊遲)가 곡물, 채소의 재배에 관해 배우기를 청하자, 공자는 선비가 어찌하여 곡식을 재배하여야만 할 것인가 하고 대답한다. 공자는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을 인정하지만 이익에 대한 도덕성[義]을 더욱 강조했다. 공자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노동에는 반대하나, 도덕성에 근거한 노동에는 결코 반대하지 않았다.<sup>12)</sup>

맹자 역시 노심자(勞心者)와 노력자(勞力者), 군자와 야인을 엄격하게 구분하였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을 수고롭게 한다.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을 다스리고, 몸을 수고롭게 하는 사람은 남의 다스림을 받으며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는 남을 먹여주고 남을 다스리는 자는 남에게서 받아먹는 것이 천하의 원리다.<sup>13)</sup>

9) 『논어』, 「자장」 7장, “百工居肆以成其事, 君子學以致其道.”

10) 『논어』, 「위령공」 31, “君子謀道不謀食. 耕也, 餽在其中矣, 學也, 祿在其中矣, 君子憂道不憂貧.”

11) 김경일, 앞의 책, 167쪽.

12) 위의 책, 168쪽.

13) 『맹자』, 「등문공」 상, “或勞心, 或勞力, 勞心者治人, 勞力者治於人. 治於人者食人, 治人者食於人, 天下之通義也.”

여기서 맹자는 노심자와 노력자를 구분하였다. 맹자는 노심자는 남을 다스리고 노력자는 남의 다스림을 받지만,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 노력자는 남을 먹여 살리고 남을 다스리는 자는 남에게서 받아먹는다고 했다. 유인희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에서 맹자의 인식은 노심에 더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지만, 먹을 것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볼 때 노력자가 주동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다고 본다. 그리고 인의를 논하는 노심자에게 먹을 것이 주어지는 것은 그들이 먹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의를 논해서가 아니라, 인의를 논한 결과로서의 효용 때문이며, 맹자가 직접 먹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다른 차원에서 노심의 역할을 논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이전 또는 그 이후에 문제되는 이른바 가치와 의미 차원에서 노심자의 역할을 논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맹자의 의도는 계급적 시각에서 노심자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분업적 노동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sup>14)</sup> 그러나 맹자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나누는 분업론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아래에는 육체노동을 하는 자는 정신노동을 하는 자를 먹여야 한다는 논리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경일은 사 계급 출신으로 스스로의 계급 역할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공자의 노동관은 당시의 생산력 수준과 아울러 사 계급이라는 신분적 배경과 계급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공자는 지배계급으로부터 노동에 대한 의미 부여의 성격이 강한 노동관을 배경으로 생산·육체노동에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으며 또 비천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평가한다.<sup>15)</sup> 그렇다면 여성이 하는 일은 어떻게 이해되었을까?

14) 유인희, 「유교와 노동」, 『종교철학과 노동의 의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려원, 1985, 88~89쪽.

15) 김경일, 앞의 책, 171쪽.

## 2.2. 유교 경전에서 말하는 여성노동

유교 경전은 왕비도 예외 없이 여공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여성에게 할 일을 부과했다. 여공은 방직과 음식하기, 술 빚기를 비롯해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내노동을 일컫는 것으로 유교 경전은 이를 여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로 규정했다. 여기서는 유교 경전 가운데 『예기』와 『시경』의 예를 들어서 보기로 한다. 『예기』는 남녀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규정을 통해 유교적 여성관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시경』은 유교적 여성관을 드러내는 다양한 시편들을 싣고 있어 유교적 여성관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이다.

『예기』의 「내칙」은 규문 내에서 요구되는 효와 남녀의 윤리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 별도의 책으로도 활용되기도 했다.<sup>16)</sup> 다음은 「내칙」의 내용으로 남자와 여자가 태어났을 때 가르쳐야 할 것들을 나이에 따라 적은 것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을 낳으면 스승이 될 만한 자를 고르고 자식이 밥을 먹을 수 있게 되면 오른손으로 하게 하게 하고, 말할 수 있게 되면 사내아이는 빨리 대답하고, 여자아이는 느긋이 대답하게 하고, 사내아이의 띠는 가죽으로 하고, 여자아이의 띠는 실로 한다. 여섯 살이 되면 셈하는 법과 동서남북을 가르치고, 일곱 살이 되면 남녀가 같은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며, 한 그릇으로 먹지 못하게 한다. 여덟 살이 되면 음식을 먹거나 드나들 때 어른에게 사양하는 것을 가르친다. 아홉 살에 날짜 세는 것을 가르친다.

사내아이의 경우, 열 살이 되면 바깥 스승에게 가서 공부하게 하고, 열 세 살이 되면 음악을 배우고 시를 외우며, 작(勺)으로 춤을 추게 하고, 열 다섯 살이 되면 활쏘기와 말타기를 가르친다. 스무 살이 되면 갓을 쓰며 성인의 예를 배우고 갓옷과 명주옷을 입을 수 있고, 서른 살이 되면 아내를 맞이하고, 마흔 살이 되면 벼슬하고, 쉰 살에 대부가 되고, 일흔에 벼

16) 김언순, 「朝鮮時代 女訓書에 나타난 女性の 正體性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 학위논문, 2005, 51쪽.



슬에 그만둔다.

여자아이의 경우, 열 살이 되면 규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 여선생이 유순한 말씨와 태도를 화순하게 갖는 것을 가르치고, 삼베 길쌈을 하며, 누에를 쳐서 실을 뽑으며, 비단·명주를 직조하고 실을 땅아서 여자의 일을 배워 의복을 제공하며, 제사에 참관하여 술과 초와 대나무 제기와 나무 제기와 침채와 육장을 올려 제사 지내는 것을 돕게 한다. 열다섯 살에 비녀를 꽂고, 스무 살에 시집보낸다.<sup>17)</sup>

이 부분을 보면 여자와 남자의 삶이 확실하게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단순화시켜 말하면 여자의 삶은 순종과 노동으로 구성되고, 남자의 삶은 학문과 정치로 구성된다. 여성교육의 내용은 길쌈, 누에치고 실 뽑는 것, 직조하는 것, 의복 만드는 것, 음식 만드는 것이고, 남성교육의 내용은 음악, 시, 춤, 활쏘기, 말타기, 예(禮)이다. 유교적 노동 관념에 따르면 여성의 노동은 성별, 직분에 따른 것으로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이며, 따라서 낮은 것이다.

이 내용은 12세기 후반 주희(朱熹)와 그의 제자 유자징(劉子澄)이 편찬한 『소학』에 거의 그대로 전재되면서 그 영향력이 오래도록 지속되었다. 『예기』에 기반을 둔 『소학』은 유교 교화를 위해 적극 활용되었으며, 여성 교육서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조선에서 간행된 대부분의 여훈서들이 『소학』을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지목하고 있고,<sup>18)</sup> 여성 행장류 서술에서도 『소학』이 교훈서로 쓰인 예가 많이 보인다. 남녀가 함께 읽은 『소학』은 유교가 성별화한 역할과 지위에 대한 관념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하나의 규범으로 받아들여 내면화하게 하는 중요한 성장치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시경』에는 생산노동과 관련된 많은 시편들이 있으며,<sup>19)</sup> 여성노동과

17) 『예기』 中, 제 12 「내칙」, 이상옥 역, 명문당, 2003, 799~804쪽.

18) 김연순, 앞의 글, 126쪽.

19) 최우석, 「『시경』에 표현된 ‘생산노동’의 종류와 그 예술성」, 『중국학논총』 28, 2010, 91~110쪽.

관련된 것도 많은데 다음의 예가 대표적이다.

사내아이를 낳으면 침상 위에 누이고 화려한 옷을 입히고 구슬을 쥐어  
놀게 하고,

……

여자아이를 낳으면 맨바닥에 누이고 수수한 옷을 입히고 실패를 주어 놀  
게 하리.

집안사람의 뜻을 어기지 말고 혼자서 헤아려 주장하지도 말고, 오직 술  
빚고 밥 짓기를 배워 부모께 걱정 끼치지 않게 하리라.<sup>20)</sup>

이 시의 요지는 여성은 낮은 존재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오직 술 빚고 밥이나 지으며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말라는 것으로 유교적 여성 주체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오로지 술 빚고 밥을 짓는 것, 즉 여공만 배우라는 것이 대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과 여공을 배우는 것은 다른 범주의 문제인데 이를 병치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기 생각을 주장한다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취사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갖는 것이다. 반면 여공만 배운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위 시는 이를 병치시킴으로써 여공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과 같은 층위로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이것이 이 시가 갖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라 할 수 있다.

“부인은 공사(公事)가 없으니, 베 짜고 옷 짓는 일을 아름답게 여기라.”<sup>21)</sup>는 시도 여성노동에 대한 담론의 구성 방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

20) 『시경』, 「소아(小雅)」, 사간(斯干), “乃生男子, 載寢之牀, 載衣之裳, 載弄之璋. …… 乃生女子, 載寢之地, 載衣之裼, 載弄之瓦. 無非無儀, 唯酒食是議, 無父母詒懼.”

21) 『시경』, 「대아(大雅)」, 침앙(瞻仰), “婦無公事, 休其蠶織.” 이 시는 ‘여자가 공사가 없는데도 베 짜고 옷 짓는 일을 하지 않는다’로 번역되기도 한다. 위 번역은 『여사

이다. 여기서 공사(公事)는 조정의 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시는 여성은 조정의 일이 없으므로, 베 짜고 옷 짓는 일을 아름답게 여기라는 뜻이다. 조정의 일이 없다는 것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결국 이 시는 여성은 조정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베 짜고 옷 짓는 일을 여성의 직분으로 여기라는 것이다. 이숙인은 이 시의 뜻은 ‘부인은 정치에 간여하지 말고 베 짜고 옷 짓는 일이나 하라’는 정도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배제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보았다.<sup>22)</sup>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배제하면서 여성에게 베 짜기와 옷 짓는 일을 부과하고 그것을 공사가 없는 여자가 해야 할 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시경』의 구절과 가정생활의 예법을 기록한 「내칙」의 내용은 남녀유别的 가치관을 확실히 드러낸 것이다. 공부해서 관직에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 남자가 시와 음악과 춤, 활쏘기와 말타기와 예를 배우며 성장해 가는데 비해, 여자는 유순한 태도와 방적을 통한 의복 제공, 제사 돕는 것을 배우며 성장한다. 남자에게는 공부해서 관직에 나가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되었고, 여자에는 노동이 부과되었다. 물론 이 내용은 이상적인 것을 쓴 것으로 현실에서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겠지만 남자와 여자의 마음과 행위를 통제할 규범으로서 오랜 기간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러한 내용은 여성들이 쓴 여성교훈서를 통해서도 계속 재생산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여사서(女四書)』를 들 수 있다. 다음은 『여사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여성노동이 어떻게 이해되었는가를 보기로 한다.

### 2.3. 여성교훈서가 말하는 여성노동

『여사서』는 후한의 반소가 쓴 「여계(女誡)」, 당의 송약소가 쓴 「여논어

---

서』를 참조하였다.

22) 이숙인 역주, 『여사서』, 도서출판여이언, 2003, 139쪽. 유가는 특히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유향의 『얼너전』 중 얼폐전에 소개된 여성들은 음란하고 정치에 간여해 나라를 망친 여성들이다. 김헌순, 앞의 책, 64쪽.

(女論語), 명의 인효문왕후가 쓴 「내훈(內訓)」, 청의 왕절부가 쓴 「여범첩록(女範捷錄)」 등 한, 당, 명, 청에 이르는 1600년 사이에 편찬된 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유교의 언어로 작성된 ‘모범 답안’<sup>23)</sup>이라 할 수 있는 『여사서』는 조선사회에도 유입되어 영조의 명으로 이덕수(李德壽, 1673~1744)에 의해 언해까지 되었다.

반소의 「여계」는 비약, 부부, 경순, 부행, 전심, 곡종, 화숙매 7장을 통해 부부관계, 시부모, 시집 형제, 여자의 행실 등 여자가 해야 할 일을 서술하고 있다. 그 중 1장 ‘비약(卑弱)’에서 반소는 『시경』 구절을 인용하여 여성을 낮은 존재로 규정하고 여자가 할 일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옛날에는 딸이 태어난 지 삼일이 되면 침상 아래 누이고 실패를 쥐어주며, 잘 씻겨서 조상의 사당에 데리고 가 태어났음을 보고하였다. 여아를 땅에 눕히는 까닭은 여자는 낮고 유약한 존재로서 다른 사람의 아래에 처하여야 함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여아에게 실패를 쥐어주는 것은 커서 근로의 정신으로 삼가 노력하는 것에 힘써야 함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아이를 깨끗이 씻겨 조상의 사당에 데리고 가서 보고하고자 하는 것은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것을 중요한 일로 삼아야 함을 밝히기 위함이다. 이 세 가지는 여자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이며, 예법의 확고한 가르침이다.<sup>24)</sup>

이 글에서 반소는 여자의 위치와 여자의 도리를 연결시킨다. 존재론적으로 낮은 존재로 남의 아래에 처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제사를 잇는 것이 여자의 도리이자 예법의 가르침이라고 보았다. 반소는 남녀의 위계를 당연시하고 낮은 존재인 여성과 노동을 연결시킴으로써 여자의 노동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sup>25)</sup> 반소는 이어서 부지런하게 일한다는 것을

23) 「여사서 해제」, 『여사서』, 349쪽.

24) 『여사서』, 25쪽, “古者, 女生三日, 臥之床下, 弄之瓦塼, 而齊告焉. 臥之床下, 明其卑弱, 主下人也. 弄之瓦塼, 明其習勞, 主執勤也. 齊告先君, 明當主繼祭祀也. 三者, 蓋女人之常道, 禮法之典教也.”

25) 『여사서』를 주석한 왕상(王相, 1662~1722)은 ‘부지런한 태도를 가진다[執勤]’는 말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잘한 모든 일을 해내야 하며, 한 번 시작한 일은 힘들고 쉬운 것을 가리지 않고 끝을 보아야 하고, 한 번 손댄 것은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sup>26)</sup>

4장 「부행(婦行)」은 흔히 여자의 네 가지 도리로 알려진 내용을 말한 부분이다. 반소는 여자의 실천 사항 중 하나로 여성의 덕[婦德], 여성의 말씨[婦言], 여성의 용모[婦容], 여성의 솜씨[婦功]를 제시하였는데,<sup>27)</sup> 이 네 가지 실천 사항은 이후 교훈서에서 계속 강조되어 왔다. 부덕·부언·부용·부공은 『주례』에 나오는 말인데 반소가 이를 재해석해서 구체화하고 여자가 갖추어야 할 네 가지 행실로 규정한 것이다.<sup>28)</sup> 여성노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바는 ‘부공’인데, 반소는 부공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길쌈에 힘쓸 뿐 웃고 떠들지 않으며, 술과 음식을 정결하게 준비하여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것, 이것을 부공이라 한다.<sup>29)</sup>

왕상은 앞서 주에서 ‘공(功)’을 ‘몸이 힘쓰는 바’라고 풀이하였는데<sup>30)</sup>, 반소는 부공을 길쌈과 음식 만드는 일로 규정함으로써, 부공을 몸이 힘쓰는 것, 즉 몸으로 하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동시에 웃고 떠들지 않

---

은 몸소 방적하여 수고스럽고 부지런한 자세로 임한다는 뜻으로, 제사를 잇는다는 것은 주부의 직분에 충실하여 술과 음식을 청결히 마련하고, 남편이 제사지내는 것을 돕는다는 뜻으로 풀이하였다. 이어서 ‘부인의 예는 하루 다섯 끼니를 충실히 하고 술과 간장을 담그며, 시부모를 봉양하고 의복을 손질하는 일’이라는 맹모의 말을 인용하고, 여자는 집안일에 힘쓸 뿐 집 밖의 일에 뜻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왕상은 여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것처럼 집안 일을 하면서 오히려 축복이라고 여겨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부인의 도라고 했다. 「여계」, 위의 책, 26~27쪽.

26) 『여사서』, 27쪽.

27) 『여사서』, 37쪽.

28) 김연순, 앞의 책, 54~55쪽.

29) 『여사서』, 38쪽, “專心紡績, 不好戲笑, 潔齊酒食, 以供賓客, 是謂婦功.”

30) 『여사서』, 37쪽.

음, 정결하게 준비함 등 일을 하면서 지녀야 할 태도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당나라 때 편찬된 송약소의 『여논어』는 1장 입신, 학작(學作), 학례, 조기(早起), 사부모, 사구고, 사부, 훈남녀, 영가(營家), 대객(待客), 화유(和柔), 수절 등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학작, 영가가 여공, 치산과 직접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학작에서 송약소는 일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여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여자가 할 일을 배워야 한다. 삼을 묶고 모시를 길쌈하되 굵고 가는 것을 구분하고 베틀에서 베를 짤 때는 절대로 급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sup>31)</sup>

송약소는 여공을 여자라면 당연히 배워야 할 것이라고 하여 여자에게 노동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임을 강조한다. 이는 반소가 『여계』에서 말한 것과 비슷하지만, 이어서 누에를 돌보고 고치를 삶는 방법, 견직물이나 베를 보관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검소함과 부지런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sup>32)</sup>

살림을 맡은 여자는 오로지 검소하고 부지런해야 한다. 부지런하면 가정을 일으키고 나태하면 가정을 기울게 한다. 검소하면 가정이 부유해지고 사치스러우면 가정이 가난해진다.<sup>33)</sup>

이처럼 부지런함과 검소함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가정 경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부지런과 검소함은 여성에게만 강조되는 덕목은 아니었다. 유가는 부지런함과 검소함을 중요한 덕목으로 상하

31) 『여사서』, 61~62쪽, “凡爲女子, 須學女工, 約麻緝苧, 粗細不同, 車機紡織, 切勿匆匆.”

32) 왕상은 주에서 이 장은 여공의 도를 말한 것으로 공이란 여자의 네 가지 덕 중의 하나이니 배우지 않을 수 없고, 배워서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고 이를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송약소의 말에 호응하고 있다.

33) 『여사서』, 93쪽, “營家之女, 惟儉惟勤. 勤則家起, 懶則家傾. 儉則家富, 奢則家貧.”

남녀 모두에게 강조했다. 신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남경 여직에 바탕을 둔 자급자족적 가정경제 형태에서는 가족 구성원을 부지런히 노동하게 하고 이러한 노동이 재생산되게 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과 부지런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사치함을 죄악시하는 것이다.

명나라 때 편찬된 「내훈」에서도 덕성, 수신, 신언(慎言), 근행(勤行) 다음에 근려(勤勵), 절검(節儉) 장을 배치하고 노동과 부지런함, 절약을 강조하였다. 근려 장에서는 태만함과 나태함, 방자함과 사치스러움을 몸을 망치게 하는 재앙이라고 하고, “그러므로 농부는 밭가는 일에 힘써야 하고 선비는 배우는 일에 열심이어야 하며 여자는 베 짜는 일에 힘써야 한다.”<sup>34)</sup>고 하여 농부, 선비, 여자의 일을 나누어 제시하였다. 또 여자가 게으르면 베틀이 늘게 되어 살림이 궁핍하게 된다고 하여 살림의 궁핍을 여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그리고 왕후로부터 사서인의 처에 이르기까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옛날에 왕후는 직접 누에를 치면서 몸소 아랫사람의 모범이 되었다. 사와 서인의 처는 모두 그 남편의 옷을 만들었다. 업적을 평가하는 제도가 있었으며, 허물이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죄를 받게 되었다.<sup>35)</sup>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허물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죄를 받았다고 하는 대목이다. 왕상은 이에 대해 남자는 밭을 갈고 여자는 베를 짜게 했는데 수확이 적거나 짠 베가 적으면 허물로 여겨 죄를 부과했는데 이는 선왕이 제정한 법이라고 풀이하였다.<sup>36)</sup> 남자와 여자 각각 수확이 적거나 베가 적으면 죄를 부과된다고 했으니 여성에게만 노동의 의무가 부과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남자는 농부의 일과 선비의 일을 나눈데

34) 『여사서』, 135쪽, “是故農勤於耕, 士勤於學, 女勤於工.”

35) 『여사서』, 136쪽, “古者, 后妃親蠶, 躬以率下. 庶士之妻, 皆衣其夫. 效績有制, 愆則有辟.”

36) 『여사서』, 137쪽.

비해, 여자의 경우는 왕후로부터 사서인의 처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베 짜는 일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베 짜는 일에 더해 술과 음식을 만드는 일을 덧붙여 여자의 일로 규정하고 그 일을 힘쓰지 않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 잘못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였다.

대체로 실을 갖고 베를 짜서 의복을 제공하고, 술을 빚고 젓갈류를 만들어 제사에 올리는 것은 여자의 일이다. 그 일을 힘쓰지 않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서 어떻게 죄를 벗어날 수 있겠는가?<sup>37)</sup>

그 다음에도 부지런함을 강조하면서 일하지 않으면서 편안해지기를 구하지 말라고 한 뒤, 이 장을 다음 구절로 마무리한다.

『시경』에서 말하기를, “부인은 공적(公的)인 일이 있는 것이 아니니 베 짜고 옷 짓는 일을 아름답게 여기라.”고 하였다. 이것은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 죄악이라는 말이다.<sup>38)</sup>

여기서 인효문왕후는 『시경』의 말을 인용하여 여자가 부지런히 일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위 『시경』의 구절은 게으르고 나태함이 죄악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성은 조정에 일에 관여하지 말고 여공을 아름답게 여기라는 뜻이다. 그런데 인효문왕후는 이것을 게으름과 연결시키고 있다. 앞의 두 책에 비해 노동에 대한 내용이 적고 게으름을 경계하고 검소함을 강조하는 것은 왕후 등 부귀한 여성들을 교훈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일 것이다.

왕절부 유씨의 『여범첩록』은 후덕(后德), 모의(母儀), 효행, 정렬, 충의, 자애, 병례(秉禮), 지혜, 근검, 재덕 등 10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물들

37) 『여사서』, 137쪽, “夫治絲執麻, 以供衣服, 罍酒漿具菹醢, 以供祭祀, 女之職也. 不動其事, 以廢其功, 何以辭辟.”

38) 『여사서』, 139쪽, “詩曰, 婦無公事, 休其蠶織. 此怠惰之惡也.”



의 예화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여성노동에 관한 내용은 「근검」 편에서 다루고 있는데 “부지런함은 여자의 직분이고 검소함은 부를 만드는 기틀”<sup>39)</sup>이라고 하여 부지런함과 검소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높은 신분의 여성이 농사와 양잠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을 자세하게 묘사한 『시경』 「칠월」의 시, 가난한 선비에게 시집가서 노동을 마다하지 않은 맹광의 일을 예로 들어 이들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한다. 여성노동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의 교훈서와 같은 맥락에 있지만 부지런함을 계속 강조한 것이 다르다.

그런데 『여범첩록』에서는 앞서의 교훈서들이 여성노동을 이야기하는 것과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도 발견된다. 유향의 『얼녀전』 「인지」 편에 나오는 노나라 칠실읍의 처녀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왕절부 유씨는 「지혜」 편에서 “노나라 칠실읍에 사는 처녀는 방적 일을 제쳐둔 채 나라일로 고심했다”<sup>40)</sup>고 소개하고 이에 대해 여성의 훌륭한 계략과 부인의 명석한 지식을 말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칠실읍의 처녀는 정치를 걱정할 인물로 유향은 사려가 깊어 멀리 볼 줄 아는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유씨는 이 이야기를 ‘방적을 제쳐두고 나라일로 고심했다’고 간단하게 요약했다. 유향은 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유씨는 칠실읍의 처녀가 자신의 본분인 방적을 하지 않고, 남성들의 영역인 정치를 걱정했다는 것으로 대비시킨 것이다. 이는 “부인은 공적(公的)인 일이 있는 것이 아니니 베 짜고 옷 짓는 일을 아름답게 여기라.”고 하여 여성의 일을 베 짜고 옷 짓는 일에 한정하고 공적인 일에 참여할 수 없게 한 것과는 다른 인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방적과 나랏일을 대비시키고 있어 여성의 본업이 방적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유가에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분업적 차원에서 구분한 것 같지만 엄연히 위계가 존재했다. 정신노동을 하는 계급과 육체노동을 하는 주체를 군자와 소인으로 나눈 데서도 그것을 알 수 있

39) 『여사서』, 325쪽, “勤者女之職, 儉者富之基.”

40) 『여사서』, 321쪽, “漆室處女, 不績其麻, 而憂魯國.”

다. 그러면 여성노동을 의미하는 여공은 어디에 위치할까? 남자는 농사를 짓고 여자는 방직을 하는 것[男耕女織]으로 대칭적 분업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이 관계는 사실 비대칭적이다. 남자는 농사를 짓는 것으로 대표되는 육체노동을 하는 계급과 정신노동을 하는 사 계급으로 구분되며 사 계급은 육체노동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남성 일부와 여성 전부는 육체노동을 해야 한다는 담론이 재생산되었지만 남성 일부는 면제되었다. 물론 이들은 정신노동을 하는 것으로 다른 노동을 하는 것처럼 논의되었지만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은 위계적으로 존재했다. 따라서 남성의 노동과 여성의 노동은 비대칭적이고 차별적 관계에 놓여 있었다. 반소가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맨바닥에 누이고 실패를 주어 놀게 하고 자신의 주장을 하지 말고 술과 음식을 의논하는 것이 전부라는 『시경』의 구절을 여자는 낮고 약한[卑弱]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할 때 가져온 것도 그 위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성에게 내조의 역할 이외의 것, 즉 주체적으로 학문을 한다든지 정사에 간섭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되며,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강조된 것은 그러한 위계를 재생산하기 위한 것이다. 유가적 여성관을 재생산하는 여성교훈서에서 여성에게 노동을 부과한 것은 여성의 노동이 없으면 가정경제가 유지되기 어려웠던 것과 관련이 있다. 여성노동 자체가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노동을 재생산하기 위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로의 연속적 재생산이 필요했던 것이다. 여성교훈서는 여성노동을 재생산하는 장치로 조선사회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음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실천이 어떻게 재생산되었는가를 행장류 기록을 통해 보고자 한다.

### 3. 여성노동을 기록하는 두 가지 방식

앞서 언급한 유교 경전이나 여성 교훈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공, 즉

여성노동에 대한 담론은 조선시대 규방가사나 여성교훈서, 행장류 기록에서 여성노동을 부덕의 하나로 만드는 담론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자급자족 경제에 기반을 둔 조선시대 양반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노동에 참여하지는 않고 노비들이 주로 그 일을 담당했지만, 양반사회가 분화하면서 양반이 직접 노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전반적인 상황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리지만, 여성생활사 자료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양반여성에게는 가내노동 전반을 관리하거나 직접 수행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식사준비, 바느질과 의복 손질, 방적, 농사와 밭일, 팔고 사기 등을 포함하는 가내노동은<sup>41)</sup> 자급적 노동이면서 동시에 생산노동이다.<sup>42)</sup>

또 무릇 아버지께서는 본디 집안일에 관심이 적으셔서 집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지 않으셨으니, 어머니께서 집안 살림을 다 맡아 하셨다. 곡식 되, 비단 상자 및 장류, 메주, 누룩 등의 기본적인 것들과 빨나무와 같은 작은 일, 담장, 마구간, 여물통 등속까지도 모두 알아서 집안을 잘 다스리셔서 아버지로 하여금 그 뜻을 편안하게 하시도록 하였다. 소반과 사발에 담긴 것들이 비록 풍부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정갈하고 맛이 있었다.<sup>43)</sup>

집안 살림을 꾸려보아도 집에는 오직 네 벽만 서 있어서 가난으로 고생하는 것이 거의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었으나 세세한 일에 대해서는 남편이 알지 못하게 하면서 말하길,

“대장부가 살림살이에 골몰하는 것은 곧 아내의 수치이니, 제가 어찌 이러한 것으로 근심을 끼치겠습니까?”

라고 했다. 누에를 치고 옷감을 짜며, 새벽부터 밤까지 잠시도 게으름을

41) 김성희, 앞의 책, 39~69쪽.

42) 생산노동적 성격에 대해서는 김경미, 앞의 글, 2012 참조.

43) 이선, 『어머니 정경부인 김씨 행장』, 조혜란·이경하 역주,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3, 보고서, 2006, 203쪽, “然家大人素疎於産業, 家有無不問, 先妣操家乘, 自穀斛練箱暨醢醬鹽鼓藥麩藉用, 以至薪芥之微, 牆垣庖槽之屬, 皆自經紀, 使家大人安其志, 盤盂釘飯, 雖不豐侈, 必潔以旨.”

피우지 않았고, 밭일이나 담장과 집을 손보는 일에 이르기까지 직접 부지런히 힘썼다.<sup>44)</sup>

위 예문들은 17, 18세기 여성 대상 행장과 묘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이 기록들은 살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학문이나 바깥일에 몰두하는 남편과 이를 내조하는 부인이라는 전형적인 틀을 반복 재생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행장류 서술은 중세 유교질서가 여성에게 요구했던 일상의 규범과 이념을 반복 재생산함으로써 여성을 통제할 동시에 여성의 일상적 삶의 흔적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 이 장에서는 행장류 자료를 ‘사실의 기록’으로 간주하거나 ‘재구성된 역사’라는 측면을 확대 과장하는 태도를 지양하면서<sup>45)</sup> 행장류 서술에 나타난 여성노동의 예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기로 한다. 그 예로 선택한 것은 신작(申綽, 1760~1828)이 쓴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다. 신작이 쓴 어머니 유사에서는 노동의 양상이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되면서 그 의미가 강조되고 있고, 신작이 쓴 아버지가 나란히 남아 있어 50년 가까이 산 부부의 삶을 각각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를 대비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신작은 평산 신씨로 아버지는 신대우(申大羽, 1735~1809), 어머니는 양명학자인 정제두의 손녀 연일 정씨(1734~1801)이다. 연일 정씨는 신대우와 결혼해서 50년 가까이 살았다. 아들인 신작은 「선비유사(先妣遺事)」와 「선부군사장(先府君事狀)」을 써서 부모의 행적을 정리했다. 두 편의 글은 각각 유사(遺事), 사장(事狀)으로 씌어졌기 때문에 글의 성격이 조금 달리 보일 수 있지만 대상인물의 행적을 기록한다는 점에서는

44) 이계, 「숙인 안동 김씨 묘지」, 서경희 역주,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6, 보고사, 2010, 53쪽, “其治圃也, 家徒四壁, 貧苦殆不可堪, 而凡係細瑣, 不使夫子知曰: 丈夫汨於營產, 是夫人恥, 吾豈以此累之? 蠶桑織紉, 夙夜不少懈, 以至園圃墻屋之事, 躬自勤勞.”

45) 이경하, 「形管의 전통, 그 일상의 정치」, 『국문학연구』 15, 2007, 88~89쪽.

큰 차이가 없다. 실제로 신작이 쓴 이 두 편의 글은 가계와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음과 장례에 이르기까지의 생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선비유사」는 연일 정씨의 가계, 출생, 결혼, 시부모 죽음, 남편과 시집 식구 뒷바라지, 여공과 치산, 남편과 아들의 관직, 죽음 등 출생에서 죽음까지의 일대기 순서에 따라 서술되어 있으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심주[강화]에서 살 때 일년 내내 쉬지 않고 일하며 생계를 꾸린 일이다. 그 사이에 부인의 자질과 인품, 검약함, 재물에 대한 태도, 친정 식구들과의 관계 등을 일화와 함께 서술하고 있다. 「선부군사장」은 신대우의 가계, 출생, 6세 때의 일화, 13세 수학, 15세 관례, 부모의 죽음, 20세 강화로 이사, 공부, 자제 교육, 묘향산 유람, 관직, 죽음 등 출생에서 죽음까지의 일대기 순서에 따라 서술되어 있다. 기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관직생활이지만, 수학적 내용과 남긴 글에 대한 서술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비유사(先妣遺事)	선부군사장(先府君事狀)
가계	가계
출생	출생
	어린시절의 일화(6세)
	산사에서 수학(13세)
결혼(15세)	관례
시부모 죽음	부모 죽음
심주[강화] 이사, 시동생 보살핌	심주[강화] 이사, 공부
성품 묘사, 남편과의 관계	중년 이후 자제 교육
	묘향산 유람, 남긴 글들
남편 첫 관직, 그에 대한 반응	첫 관직. 선공감감역(50세)
심주에서의 여공과 치산, 부지런함과 검약함, 친정가족에 대한 태도	음성현감 등 역임한 관직
심주에서의 여공과 치산 강조	관직에서의 업적
죽음	죽음
숙부인 증직	부인, 자녀, 풍모

신작의 아버지 신대우는 50세에 선공감 감역에 보임된 이후 75세에 사직하기까지 20여 년간 음성 현감, 강동 현감, 청도 군수, 의금부 도사, 우부승지, 호조참판 등을 지냈다. 그러나 관직을 하기 전까지 신대우는 많은 부분 부인에 기대어 산 것으로 보인다. 정씨 부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모가 어린 동생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자 신대우는 생활이 몹시 곤궁했다. 이를 본 장모 유씨 부인이 딸과 사위 가족을 강화로 부르고 물심양면으로 생계를 도왔다. 부인 정씨는 신대우가 벼슬에 나가기 전까지 부단한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 표에서도 보듯이 어머니 정씨 부인에 대한 기록은 15세에 신대우에게 시집간 이후 시동생들을 보살피고, 살림을 경영하고, 친정형제들을 돌본 것이 주를 이루고, 신대우에 대한 기록은 신대우의 성품과 수학과 관직생활이 주를 이룬다. 두 글 전체를 각각 특징짓는 요소를 든다면 정씨 부인의 경우 부단한 노동과 치산 활동이고, 신대우의 경우 부단한 수학과 관직 생활이다. 조선사회는 남녀의 활동 공간과 역할이 달랐기 때문에 부부의 삶일지라도 다르게 기록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부부가 동일한 시기에 겪은 동일한 경험임에도 그 기록 내용이 다음과 같이 다르다는 점이다. 시부모가 돌아가신 뒤 강화로 가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기록한 내용을 보자.

5년을 사는 동안 시부모님께서 잇달아 세상을 등지셨다. 장례를 치른 후에는 더욱 가난하여 살아갈 방도가 없어서, 아버님께서 아우와 누이를 이끌고 심주(沈州)에 이르셨다. 심주는 부인이 나고 자란 고향이었다. 당시 둘째 시동생과 작은 시누이 모두 아직 관례(冠禮)와 계례(笄禮)를 올리지 않았고, 셋째 시동생은 겨우 이가 났으며, 넷째 시동생은 젓먹이로, 먹여 기르기에 허둥지둥 고생이 매우 심하셨다.

부인은 시어머니가 애써 길러주신 정을 생각하고 시동생들이 의지할 데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함께 살고 기르면서 굶주림과 추위를 나누었다. 때를 벗겨주고 이를 잡아 주었으며 더러운 옷을 새로 빨아 주셨다. 몸소 힘든 고

생을 하고 가난을 겪으면서 친한 종들보다도 더 많이 일을 하셨다. 그러나 그것을 본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여 조금도 얼굴빛이나 말에 드러내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하나도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으셨다.<sup>46)</sup>

부모님이 잇달아 돌아가셨다. 본래 가난하고 검소한데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더욱 궁색하였다. 마침내 어린 아우와 누이를 이끌고 바닷가에 가서 강화 진강 남쪽 이십 리 근방의 용일촌에 세를 내서 지냈다. 한 이랑의 땅, 사방 한 자밖에 안 되는 작은 방, 흙으로 만든 섬돌, 소나무로 된 처마가 있는 집에서 하루에 한 끼씩 먹었다. 사람들은 그 근심을 감당하지 못 했으나 공은 어렵고 곤궁한 가운데 좋은 마음을 품고 성품을 가다듬으며 지냈다. 낮에도 문을 닫아걸고 경전에 마음을 깃들이고 성왕의 문장을 읽고 현인의 덕업을 탐구하며 뜻이 맞는 곳에 이르면 거의 잠자고 먹는 것을 잊었다. 그 리하여 근원을 살피고 근본을 따져 흐름을 표현하고 경전의 뜻을 아름답게 써 냈다.<sup>47)</sup>

부인의 유사에서는 강화로 갔을 당시 시동생들이 얼마나 어렸는지 하나하나 열거하고, 이들을 어떻게 보살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부인이 종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 그것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다고 기

46) 신작, 「선비유사」, 홍학회 역주, 『19세기·20세기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1, 559쪽, “居五年, 皇舅姑相繼捐背, 壑斂訖, 益貧窶, (無所聊生.) 家大人牽率弟妹, 以至於沁. 沁夫人生長之鄉. 時仲叔小姑俱未冠笄, 三叔醜, 四叔孩, (尖嘯皇皇荼毒絕苦). 夫人念先姑鞠哀之情, 愁諸叔之靡恃, 契濶育鞠, 分飢共寒. 刮覽垢蝨, 新滌弊汚, 躬勞辱備艱苦. 役甚賤婢使, 處之固有. 不唯不幾微色辭, 殆無一不出(於)衷懇者.” 『石泉遺稿』 권2, 『한국문집총간』 279, 517쪽.

47) 신작, 「선부군사장」, “先考妣相繼殞沒, 素貧儉, 葬斂訖益大窶. 遂牽率弱弟稚妹, 投跡海濱, 僦居于沁州鎮江南二里許翁逸村塢. 一畝之宅, 方丈之室, 土階松簷, 中日一餐. 人不堪其處, 而公懷寶繕性於崎嶇儉約之中. 荊門晝掩, 寄懷墳典, 覽聖王之文章, 究賢人之德業, 方其意會, 殆忘睡與饑. 是以元元本本, 辭述川流, 麗辭典義, 潤乎金石, 時人擬其文於劉向.” 『石泉遺稿』 권1, 『한국문집총간』 279, 487쪽.

록하고 있다. 그런데 신대우 가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모두 빠져 있다.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강화로 가서 세를 내서 궁핍하게 지냈으나 문을 단아걸고 자고 먹는 것을 잊고 공부하고 글을 썼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어떻게 먹고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처럼 한쪽에서는 시동생을 보살핀 것을 강조하고 한쪽에서는 열심히 공부한 것을 강조한 의도는 분명하다. 정씨 부인은 여공에 충실한 인물로, 신대우는 학문에 충실한 인물로 그리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서술의 기저에는 ‘공자가 군자는 도를 도모하고 밥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의 전범으로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외에도 달리 기록된 것들이 보인다. 신대우의 가장에는 처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기록이 직접 드러나지 않고, 장모 류씨 부인이 사위의 가난함을 걱정하자 권성일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진평과 같이 아름다운 재주가 있는데 어찌 오래 빈천하게 지내겠느냐고 했다는 일화를 기록하고 있다.<sup>48)</sup> 반면 정씨 부인 유사에는 딸이 가난해서 농사지을 땅이 없는 것을 보고 류씨 부인이 밭을 주어서 먹고 살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sup>49)</sup>

적어도 신대우의 사장에는 처가의 도움을 받았든지, 부인의 노동에 대한 내용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대신 부인의 유사에는 부인의 노동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드러나는 한 가지 사실은 이것이다. ‘신대우의 생애에서 그를 위해 수행된 정씨 부인의 노동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별도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 부인의 기록에는 노동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편의 기록에는 그것을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보았듯이 여성의 노동은 공사(公事)가 없는 여성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

48) 신작, 「선부군사장」, “外姑柳淑人嘗爲公憂貧, 權公聖一曰: 願勿憂也. 安有美如陳平而長貧賤乎.”, 위의 책, 489쪽.

49) 신작, 「선비유사」, 홍학희 역주, “初夫人母柳淑人見夫人家徒壁立, 秋無摘禾之地, 使食初亭西田.” 앞의 책, 519쪽.



서 여성의 노동은 남성의 역사에서는 자연스럽게 은폐되고 여성의 역사에서는 강조된다. 왜냐하면 여성노동을 재생산해야 했기 때문이다.

정씨 부인의 행장에는 노동을 중심에 놓고 서술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마지막 부분에 강화 시절의 고생스러운 노동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씨 부인의 노동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 글의 주된 독자인 며느리를 비롯한 집안 여성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것이다. 신작은 어머니 유사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강화에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부인이 몸소 가난을 겪으며 집안을 일으킨 것을 강조한다.

부인은 몸소 가난을 겪으면서, 아침저녁으로 몸이 다하도록 일을 하셨다. 몇 되의 곡식이라도 수확을 하면 옥(玉)과 같이 여겼으나 오히려 뭘나 무가 없어 끓여먹지도 못하셨다. 여력(餘力)이 있으시면 식구들의 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자신은 해진 저고리, 헌 솜으로 만든 옷이라도 싫어하시는 것이 없으셨다. 이불이나 홑이불도 없이 여름에는 덥게 겨울에는 춥게 지내셨다. 지금은 여벌옷이 장에 있고, 끼니마다 밥이 남는다. 그런데 며느리들이 시집을 온 후에 아이들이 또한 늦게 태어나 집안을 일으킬 때의 가난을 다 겪지 못하였다. 민생(民生)은 부지런함에 있으니, 농사짓는 의미를 소홀히 할까 걱정이이다.

이에 몸가짐이나 행실 하는 가운데 평소 가난한 집안일을 처리할 때의 갖은 괴로움과 온갖 근심걱정을 모두 갖추어 적었으니, 감히 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를 일러 부인의 뜻이라 할 것이며, 또 후세 사람들이 마땅히 계술(繼述)해야 할 것이다. 일마다 가슴에 받들고 말씀마다 뼈에 새겨야 할 것인데, 차마 붓을 들어 옛 일을 쓸 수가 없다.<sup>50)</sup>

50) 신작, 「선비유사」, 홍학희 역주, 『19세기·20세기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1, 575쪽, “夫人躬親庶艱, 靡朝鞫瘁. 數升之穀, 稷之如玉, 而猶復無薪以孰之. 餘力恤着, 弊襦縑著, 未嘗黻也. 衾綯剝脫, 夏熱冬寒. 顧今衣餘在笥, 飯餒每食. 而諸子婦之入門也後, 童穉又晚生, 未能悉造家之艱. 民生之在勤, 其於肯獲終畝之義, 唯恐忽諸. 茲於儀行之次, 仍及平日料理貧家事, 種種苦惱, 種種憂恤, 纖悉備載, 不敢不盡. 謂之夫人之

신작이 가난한 시절 겪었던 온갖 어려움을 다 기록하는 것은 후세 사람들이 이제는 형편이 좋아져서 그런 가난을 겪지 못하여 농사짓는 의미를 소홀히 할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다. 집안 여성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히 드러난다. 신작은 이를 ‘부인의 뜻’이라 하고 후손들이 계승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비해 『아버지 사장』에서는 부인에 대해 가장 끝부분에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부인은 영일 사람으로 부평부사 휘 후일의 따님이시고 왜주 문강공 휘 제두의 손녀이다. 착한 성품이 자연스러워 성정을 따라도 도에 가까우셨다. 부지런함과 검소함, 정성과 올바름으로 집안일을 경영하였다. 시동생들은 길러준 은혜를 간직했고, 시누이들은 교화해서 이끌어준 공을 우러렀다. 아버님보다 팔년 먼저 돌아가셨다.<sup>51)</sup>

이처럼 두 기록은 여성노동에 대한 상이한 태도를 보여준다. 하나는 여성교육을 위해, 다시 말해 또다른 여성노동을 재생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동의 양상을 기록하고, 또 다른 하나는 남성의 학문이나 성취를 이루게 하는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 기록되지 않은 채 흔적만 겨우 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여성노동에 대해 서술하면서 비록 아들일지라도 그 괴로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것을 얼마나 잘 감내했는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해냈는가, 얼마나 드러나지 않게 잘 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여성노동이 그만큼 가정경제에 중요하다는 것, 따라서 여성노동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가정경제 유지에 긴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교훈서에서 게으름과 사치를 질타하고, 소설이나 가사에서

志、且後人所當繼述者也。事事推胸，言言刻骨，而忍能翫管追提。”『石泉遺稿』권2, 『한국문집총간』 279, 517쪽.

51) 신작, 『선부군사장』, “夫人迎日人，富平府使諱厚一之女。祭酒文康公諱齊斗孫。善性自然，率情近道。勤儉誠正，以營克家事。群叔懷鞠育之恩，婦仰化導之功。先公八年卒。”，위의 책, 487쪽.

게으른 여성을 희화화하거나 부정적 인물로 재현하는 것도 동일한 인식의 소산이다. 여성 행장류에는 공부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재능 있는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공부를 멈추고 여공에 힘썼다는 식의 서술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이 역시 여공을 여성의 덕 가운데 무엇보다 우위에 두는 의식을 드러낸다. 신대우의 기록은 행장류 기록 가운데 한 예로서 다른 예들을 통해 여성노동을 어떻게 기록했는가를 더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 4. 결론

이 글은 유교 경전 및 여성 교훈서가 여공(女功), 치산(治産)이라는 이름으로 수행된 여성노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서술했는지를 살펴보고, 조선시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록 중 한 예를 들어 여성노동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이를 본 것은 유교 가부장제를 근간으로 한 조선사회에서 여성노동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었는가, 여성노동에 대해 어떤 가치를 부여했는가, 그러한 가치 부여를 통해 여성을 어떻게 규율했는가를 보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작업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먼저 여성노동에 대한 유가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노동에 대한 유가의 인식을 간단히 살펴보고, 유교 경전과 여성 교훈서인 『여사서』를 중심으로 여성노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았다. 유가에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분업적 차원에서 구분한 것 같지만 엄연히 위계가 존재했다. 정신노동을 하는 계급과 육체노동을 하는 주체를 군자와 소인으로 나눈 데서도 그것을 알 수 있다. 남녀 노동의 경우, 남자는 농사를 짓고 여자는 방직을 하는 것[男耕女織]으로 대칭적 분업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이 관계는 사실 비대칭적이다. 남자는 농사를 짓는 것으로 대표되는 육체노동을 하는 계급과 정신노동을 하는 사 계급으로 구분되며 사 계급은 육체노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성 일부와

여성 전부는 육체노동을 해야 한다는 담론이 재생산되었지만 남성 일부는 면제되었다. 물론 이들은 정신노동을 하는 것으로 다른 노동을 하는 것처럼 논의되었지만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은 위계적으로 존재했다. 상층 여성들이 편찬한 여성 교훈서 역시 유교 가부장제의 이념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여성노동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서 여성을 규율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조선시대 행장류 기록 중 신대우 부부에 대한 것을 비교하면서 부덕으로 여성노동 담론이 재생산되는 한편, 남성의 기록 속에서는 은폐되는 양상을 보았다. 이 두 기록은 여성노동에 대한 상이한 태도를 보여준다. 「선비 유사」는 여성교육을 위해, 다시 말해 또 다른 여성노동을 재생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동의 양상을 기록하고, 「선부군 사장」은 남성의 학문이나 성취를 이루게 하는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 기록되지 않은 채 흔적만 겨우 볼 수 있게 해준다. 여성노동에 대해 서술하면서 비록 아들일지라도 그 괴로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것을 얼마나 잘 감내했는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해냈는가, 얼마나 드러나지 않게 잘 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여성노동이 그만큼 가정경제에 중요하다는 것, 따라서 여성노동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가정경제 유지에 긴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방적의 경제적 가치는 여사서에서부터 이야기되어 온 것으로 조선시대 가정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 경제적 가치와는 별도로 이러한 일들이 낮은 존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부인의 덕을 실천하는 행위였으며, 따라서 굳이 따로 드러내서 이야기될 필요도 없는 미화된, 그러나 은폐되고 강제된 노동이었다는 점은 달리 논의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논어』

『맹자』

소혜왕후, 『내훈』, 이경하 역주, 2011, 한길사, 1~427쪽.

신작, 『石泉遺稿』, 『한국문집총간』 279, 476~573쪽.

『소학』

『시경』

조대가위, 『여사서』, 이숙인 역주, 도서출판여이연, 2003, 1~386쪽.

『예기』

홍학희 역주, 『19세기·20세기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1, 1~828쪽.

김현미 역주, 『19세기·20세기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4, 1~538쪽.

### 2. 단행본

김경일, 『노동』, 한국개념사총서 9, 小花, 2014, 135~146쪽.

김성희, 『한국여성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의 역사』, 신정, 2002, 1~303쪽.

이능화, 『朝鮮女俗考』, 민속원, 1995, 1~177쪽.

### 3. 논문

권순형, 「고려시대 여성의 일과 경제활동」, 『이화사학연구』 31, 2004, 57~80쪽.

김경미, 「선비의 아내, 그녀들의 숨은 노동」, 『여/성이론』 11, 도서출판여이연, 2004, 188~207쪽.

김경미, 「조선후기 여성의 노동과 경제활동: 18~19세기 양반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8권 4호, 2012, 85~117쪽.

김연순, 「朝鮮時代 女訓書에 나타난 女性의 正體性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5, 1~209쪽.

- 이경하, 「彤管의 전통, 그 일상의 정치」, 『국문학연구』 15, 2007, 79~96쪽.
- 이순구, 「조선초기 여성의 생산노동」, 『국사관논총』 49, 77~103쪽.
- 이영찬, 「공자의 경제사상과 노동관」, 『한국학논집』 38, 계명대학교 한국학  
연구원, 2009, 75~116쪽.
- 최우석, 「《시경》에 표현된 ‘생산노동’의 종류와 그 예술성」, 『중국학논총』  
28, 2010, 91~110쪽.

## Abstract

### The Confucian Discourse on Women's Labor and Its Way of Reproduction

Kim, Kyung-Mi

This thesis aims to consider the Confucian discourse on women's labor through the Confucian scriptures and Confucian Women's Classics(女性教訓書) and to reveal the way of reproduction of women's labor. The Confucian scriptures and the Confucian Women's Classics regard women's labor as yeo-gong(女功), one of virtue. Because it was necessary to emphasize women's labor for maintaining the domestic economy, Confucian patriarchy needed to control women's space and time, and to regulate women's body. To reveal the Confucian thought on women's labor, first, I examine the thought on the concept of labor briefly, second, I analyse how the Four Books for Women(女四書), one of the representative of the Confucian Women's Classic's, understand and explain women's labor. Through this analysis, I attempt to reveal that the Confucian scriptures and the Confucian Women's Classics produce the knowledge about women and work as the apparatus to reproduce the women's labor. And then, among haeng-jang(行狀), the records of a deceased person's life of Chosun Dynasty, I select records of Shin Daewoo(申大羽, 1735~1809) and his wife written by their son, Shin Jak(申緯, 1760~1828), and compare the perspective of narration. In the record of Shin Daewoo, Shin Jak mainly narrated the scholarship and the career, and did not write his mother's labor.

On the other hand, in his mother's record, Shin Jak emphasized her labor and management of their property and tried to make his daughters in law and other women in his family remember in order to reproduce the women's labor.

Key words : Women's Labor, Confucian Women's Classics(女性教訓書), The Four Books for Women(女四書), Yeo-Gong(女功), Haeng-Jang(行狀)

■ 본 논문은 2016년 7월 12일에 접수되어 2016년 7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6년 8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